

발터 벤야민(W. Benjamin)의 번역론에 관한 소고*

윤 성 우
(한국외대)

1. 여는 글

이 글의 출발점은 발터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Die Aufgabe des Übersetzers)¹⁾에 대한 읽기에서 비롯되었다. 벤야민의 이 에세이는 그 분량이 우리말 번역본으로 15페이지에 불과하지만 불친절하며 읽어 내기 쉽지 않은 텍스트

* 이 논문은 2007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1) 벤야민의 이 글은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반성완 편역, 1983. 서울: 민음사, 315-333)에 실려 있다. 원문에 충실하려는 충실성과 원문을 의미에 맞게 재현하려는 전통적 갈등을 더 한층 높은 철학적 문제의식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독자의 관점과 논점에 따라 아주 다양한 읽기가 가능한 압축적인 글이다. 필자는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의 불어판(Walter Benjamin, *Oeuvres I*, Gallimard, 2000, 244-262)과 영어판("THE TASK OF THE TRANSLATOR: An introduction to the translation of Baudelaire's *Tableaux Parisiens*", in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ed. by Lawrence Venuti, Routledge, 2000, 15-23.)을 참조했다. 인용할 때에는 불어판을 준거로 삼고 필요할 때에는 우리말 번역본을 병기하였다.

스트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텍스트로 널리 알려진 문예 이론가이자 문필가 또는 (재야) 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예술작품의 철학적 지위나 위상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와의 대결을 피해나기 어려울 정도이다. 기술공학의 발전이 거듭되고 있는 현대에 들어서 예술작품은 그 고유성, 일회성, 유일무이성을 상실하고 무한 복제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주장은 예술 작품에 대한 많은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게 사실이다. 벤야민의 대한 이런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그의 「번역가의 과제」는 번역에 대한 그 동안의 이해를 바꾸어 놓은 것이 있을까?

「번역가의 과제」의 서두를 여는 다음과 같은 벤야민의 언급을 처음 읽는 독자는 적지 않게 놀라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어떤 예술작품이나 예술형식을 인식하는데 수용자를 고려하는 일은 결코 생산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정작 실제의 예술작품에서는 인간의 반응은 별로 문제시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 어떤 시도 독자들을, 그 어떤 그림도 관람자를, 또 그 어떤 심포니도 청중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번역은 원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를 위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예술의 영역에서 원문과 번역이 서야할 서열의 차이는 충분히 설명된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는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 번역의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의 문학작품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문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전달해주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학에서 본질적인 것은 의사소통도, 메시지 전달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번역은 의사소통, 즉 비본질적인 것을 전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사소통하려는 것, 이것은 나쁜 번역의 징표들 중의 하나이다.

이 서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번역과정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많은 문제 영역들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수용자인 독자의 문제, 번역과 (모국어) 독자 사이의 문제,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와 위상의 문제, 원문 텍스트의 종류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번역의 목적과 역할의 문제 등이다. 물론 우리가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것은 이 다양하고도 중요한 문제들 모두에 대해 비판적 주석을 달거나 비평해보려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단편적

이고 심지어는 난삽하게까지 보이는 「번역가의 과제」라는 텍스트의 중요한 주장들과 테제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해명하여 「번역가의 과제」 지니는 번역학적 함의와 그 (언어) 철학적 의의를 되짚어보는 일이다.

2. 번역과 의미의 문제

번역의 긴 역사에서 번역 활동에 대한 이론적 성찰은 늘 있어왔다. 시대마다 번역 활동을 성찰할 때 피할 수 없는 텍스트가 있게 마련인데 19세기에서는 슈라이어마허의 것이었다면 20세기는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깝게는 19세기에 해석학자이자 신학자인 슈라이어마허(Schliermacher)는 「번역의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하여」(Ü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Übersetzers, 1813년)를 발표함으로써 지난 19세기 번역 활동의 지평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즉, 원문의 저자와 번역문의 독자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고민했었다. 그가 보기에 그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다. 번역문의 독자를 원저자에게 인도해서 원저자를 중심에 놓고 번역하는 방법과 번역문의 독자를 번역의 중심에 놓고 원문의 저자를 독자에게 이끌고 가는 방법이 그것이다. 슈라이어마허가 전자로 기울어진 결정을 내린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본래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파리 풍경들』(Tableaux Parisiens)를 직접 독일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책의 서문으로 실렸던 것이 바로 「번역가의 과제」라는 에세이다. 하지만 이 에세이가 나중에 전집으로 최종적으로 출간될 때에는 이런 부연 설명 없이 독자적인 벤야민의 번역론을 상론하는 에세이로 등장했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 단편적이고 압축적인 에세이에 대한 독립된 연구저서나 주석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국내에 번역 소개된 벤야민 관련 외국 연구서²⁾나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서도 따로 그 에세이는 집중적 탐

2) 최근 들어 『아케이드 프로젝트』 등 벤야민의 저서들이 꾸준히 번역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벤야민의 번역론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다루는 글들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벤야민을 다룬 몇 외국 연구서들에 아주 간략하게나마 등장하고 있을 뿐이다. 『발터 벤야민』(몸메 브로젠더 지음)과 『발터 벤

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 형편이다. 주로 벤야민의 번역론은 그의 언어이론이나 언어철학의 하위 범주로 개진될 뿐이다. 언어 범주가 번역 범주보다 더 큰 범주이고 더 근본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테지만 이런 사실 자체가 번역의 고유함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의 핵심적 언어론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그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언어는 자신을 전달한다”(벤야민 재인용, 최성만 296)는 것이며, “모든 언어는 자체 내에서 자기 자신을 전달하며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전달의 중간자(das Medium)”라는 것이다.(벤야민 재인용, 김영옥 163). 단적으로 말해 벤야민에 따르면 언어는 무엇의 보다는 자신을 소통시키는 것이지 다른 사물이나 지시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발화자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사물을 지시하는 것을 언어의 본래적 기능으로 파악하는 상식적 언어관과는 한참 거리가 먼 독특한 시각이다.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언어는 그 자신을 전달한다는 뜻인가? 『발터 벤야민』의 저자인 N.볼츠와 빌렘 반 라이엔은 이런 독특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Ding)과 “언어-사물”(Sprach-Ding) 사이의 구분과 같은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호롱불’이라는 언어는 사물로서의 호롱불을 소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호롱불”(볼츠, 라이엔 59)을 소통시킨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의 언어관이 어느 정도 번역관에 결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벤야민의 언어관이 이미 상당히 메타적인(meta) 태도를 취하는 이상 그의 번역론도 메타적인 성격을 지닐 것이라는 점이 예견된다.

다시 말해 언어는 단순히 의사전달의 수단이나 메시지 전달의 매체가 아니라는 점(김영옥 161)이며, 무엇인가가 전달되어진다 하더라도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어 안에서”(이창남 237)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언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알려주는 매체이라 할지라도 언어 그 자체로서 의사소통적 기호체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벤야민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언어에 기반을 둔 작업인 번역 활동 또한 번역되어야 할 의미나 저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작업이상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또 그렇게 주장해야만 벤야민의 내재적인 논리와 주장에 정합적이라고 볼 수

야민-예술, 종교, 역사철학』(N.볼츠와 빌렘 반 라이엔 지음) 등을 참조 할 것.

있을 것이다. 앞서 우리가 길게 인용한 「번역가의 과제」서두 또한 언어에 대한 벤야민의 생각과 입장에서 보자면 그다지 놀랄만한 입론(立論)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벤야민의 언어론과 번역론은 언어적 기호(*signe linguistique*)가 비록 탁월한 기호적 특성을 지녔다하더라도 기호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기호의 구성요소로서 기표(시니피앙)와 기의(시니피에)를 가졌기 때문에 메시지나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언어 기호란 불가능하다는 전통적인 언어학의 입장과 충돌할 수도 있다. 특히 언어 기호들을 상이하게 사용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메시지를 다른 언어의 메시지 전체로 대체하는 것이 “언어 간 번역 *la traduction interlinguale*, 혹은 본연의 번역 *traduction propre*”(야콥슨 84-85)이라고 간주하는 야콥슨 같은 언어학자의 언어관과 번역관 상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³⁾

번역을 두 언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복원”(restitution du sens, 벤야민 254)이나 “의미의 포착”(captation du sens, 베르만 34)으로 보는 번역관에 벤야민이 반기를 든다면 그는 과연 두 언어 간의 번역에서 무엇을 옮겨야 한다고 믿고 있는 걸까? 그런데 벤야민이 의미중심 번역에 반기를 든다고 해서 그런 번역을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벤야민은 의미중심 번역은 번역가의 현재적 활동 양상을 지적하는 번역의 한 방식일 뿐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의 번역론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 에세이의 제목은 번역가의 ‘과제’

3) 언어 간 소통의 광범위한 실행, 특히 번역 활동은 번역 활동은 언어학에 의한 끊임없는 검토 아래에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로만 야콥슨 같은 언어학자는 언어 기호와 의미 사이의 관련성을 번역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

“이제 우리는 언어 기호 해석에 있어 3 가지 방법을 구별할 수 있는데, 즉 동일한 언어 안에서 다른 기호로 번역될 수 있는 것과,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비언어적 상징체계로 번역될 수 있는 것 등이다.

- 1) 언어내적 번역 *la traduction intralinguale*, 혹은 바꾸어 말하기 *reformulation, rewording*; 이것은 같은 언어 안에서 다른 언어 기호로 해석하는 것이다.
- 2) 언어 간 번역 *la traduction interlinguale*, 혹은 본연의 번역 *traduction propre*; 이것은 어떤 언어로 언어 기호를 해석하는 것이다.
- 3) 기호간 번역 *la traduction intersémiotique*, 혹은 기호변경 *transmutation*; 이것은 비언어적 기호 체계로 해석하는 것이다.”(권재일 옮김, 야콥슨 지음, 1989. 『일반언어학이론』, 서울: 민음사, pp.84-85)

(임무, Aufgabe) 이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번역 활동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의미중심 번역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번역, 더 이상의 지향점으로 향하지 않는 번역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현실의 번역가가 머무르는 상태, 현실의 번역가가 만족하는 번역의 자족적 수준을 벗어나서(auf-),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고유한 의미의 번역가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 벤야민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말 「번역가의 과제」라는 에세이는 번역가의 과제에 대해 일목요연하고 정리된 목록을 보여주는가? 몇 번 ‘번역가’의 과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대부분 번역 활동 또는 번역 행위의 과제나 임무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의미중심 번역을 넘어서는 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번역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의미중심 번역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거 제시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번역가의 과제」에서 벤야민은 의미중심 번역이 아니라 번역이 가야할 지점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장에서 논의해야 할 바이기도 하다. 어쨌든 자신의 긍정성과 기여를 보여주기 위해 벤야민은 비판 대상의 부정성과 한계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벤야민이 간과했던 비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벤야민과 함께 “원문중심주의자”(sourciers, 라드미랄 XV)로 취급되는 프랑스의 번역(철)학자인 앙트완 베르만(A. Berman)⁴⁾이다. 의미중심번역에 대한 베르만의 비판은 그 자체로 연구해 볼 만한 학문적 가치와 중요성을 지닌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소개하거나 상론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벤야민이 그 비판을 누락한 것을 보충하는 정도에서 그치도록 하자.

베르만은 의미를 포착하는 것이 번역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언어

4) 앙트완 베르만(1941-1991)은 *L'épreuve de l'étranger*의 저자로서 프랑스 번역 철학 및 번역학을 대표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특히 『낯선 것이 주는 시련』으로 옮겨 질 수 있는 *L'épreuve de l'étranger*의 지은이로서 독일 낭만주의의 번역 전통과 체험을 헤르더, 괴케, 슐레겔, 노발리스, 훔볼트, 슐라이어마허, 휠덜린 등의 작가들과 철학자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으로 이름이 나있다. 우리가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베르만의 저서는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ltain*로서 『번역과 문자 또는 먼 것의 처소』쯤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와 번역에 대한 전적으로 플라톤적인 관점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비판한다. 플라톤은 감각적인 것과 비(非) 감각적인 것 사이의 분리, 물질적인 것과 초물질적인 것(형이상학적인 것)사이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후자를 지향하는 것이 철학함의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조차도 그것이 정주(定住)하고 있는 물질적인 거처인 언어의 시니피양적인 요소로부터 -베르만은 이를 불어로 *lettre*라 부른다(베르만 34) - 분리되어 존재가능하며 그래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출발언어로부터 ‘의미’를 추출하여 도착언어의 형식과 구조에 알맞게 따르도록 옮기는 작업하는 것이 플라톤적인 의미의 번역 행위라는 것이다. 이때 의미를 강조하다보니 출발언어의 언어적 흔적이나 자취는 사라지고 도착언어를 우위에 두게 되고, 마치 원저자가 도착언어로 작품을 쓰듯 그렇게 번역해야 좋은 번역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감이나 독서에서 번역투가 감지되지 않아야 하며 번역물인지 느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나이다(Nida)의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ce)를 연상시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베르만은 이런 의미중심 번역을 “자민족 중심번역”(traduction ethnocentrique, 베르만 35)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의미를 번역 활동에 중심을 두다 보니 도착언어는 전혀 “손댈 수 없으며 우월한 존재”(베르만 34)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도착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어의 낯선 의미가 잘 길들여지고 순화되어져서 도착언어의 독자가 불편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어 작품이 받아들여지는 번역이 바로 의미중심번역의 결과이자 자민족 중심번역이라고 베르만은 비판하는 것이다.

3. 의미를 넘어서 어디로?

베르만의 비판적 작업의 덕분에 벤야민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전문 실무 번역사들은 의미중심 번역이 아니라면 그것을 넘어서 번역활동 또는 번역가가 어디로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자문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슐라이어마허가 통역사(Dolmetscher/interprète)와 번역가(Übersetzer/traducteur, 슐라이어마허 35)를 나누면서 전자는 상업 및 경제 분야 텍스트를 후자는 예술 및 과학 분야 텍스트

담당하는 것으로 분류한 바 있듯이 벤야민의 번역에 대한 입장도 그렇게 이분법적인 뉘앙스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문학 및 예술 또는 철학관련 텍스트 위주의 번역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의미중심 또는 메시지중심의 번역이 실무적이고 실생활관련 분야인 법률, 경제, 비즈니스 등등에서 원칙적으로 채택되는 번역인 것이 현실이고 보면 벤야민의 그런 비판은 다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번역가의 과제」 서두에서 독자(또는 청중)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예술작품론을 말할 때는 더욱 그러한 인상을 준다.

번역 활동의 지향점 또는 번역가의 과제를 벤야민은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지적하고픈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가 「번역가의 과제」를 쓸 당시 벤야민은 보들레르의 시(詩) 일부를 번역하여 내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 소설가 프루스트의 작품에 대한 부분적인 번역을 시도하지만 그렇게 성공적인 번역가로서 자리를 잡았거나 명성을 획득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점은 벤야민이 「번역가의 과제」를 서문으로 위치키면서 그가 직접 번역한 보들레르의 시집이 단지 500부만 인쇄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몸메 브로젠더 138). 따라서 「번역가의 과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벤야민 자신의 번역물들이 그다지 대중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그의 번역론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대중적으로 성공한 번역가나 명성을 누리는 번역가 번역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구상을 내놓지 못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흔한 경우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벤야민에 대해서는 그의 번역이론 또는 번역사상이 그 자신의 고유한 번역 경험이나 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 같다.

좀처럼 체계적이지도 친절하지도 않는 「번역가의 과제」에서 벤야민은 의사소통이나 정보전달이상의 것을 목표로 하는 번역들이 등장하는 시기를 논하면서 그 원문 작품이 당대나 후대에 살아남아 명성과 명예를 획득하게 될 때 그 해당 번역물들이 생겨난다고 말한다(벤야민 247). 이것은 번역물이 그 원작품의 명성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의존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작품의 명성에 번역이 기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번역 속에서 원작품의 생명이 거듭 지속적으로 새로워지고, 그 생명이 가장 때늦게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자신을 전개”(벤야민 247-248)할 수도 있다고 벤야민은 주장한다. 벤야민이 번역을 원문과 동일한 어떤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번역 안에는 원문의 어떤 것을 증폭하고 채신할 그 무엇을 담고 있거나 그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 하나의 원작품이 번역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 자체가 그 원작품에 플러스알파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원작품에서는 명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던 “어떤 특정한 함의”(une certaine signification, 벤야민 247)가 번역을 통해 그리고 번역 안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의 조형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작품의 주변을 돌며 다양한 각도와 구도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듯이 번역은 원작에 암묵적으로 내재된 어떤 측면이나 양상을 보다 주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의 지향점과 번역가의 과제로 좀 더 다가가 보자. 벤야민은 짧은 에세이인 「번역가의 과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에서 “번역은 하나의 형식(une forme)”이라는 언급을 두 번 정도 하는데 이 점을 좀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번역과정이 출발언어와 도착언어라는 두 언어를 무미건조하게 등치시키는 작업이 아닌데다가 두 언어 사이에서 의미들 간의 전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벤야민은 번역이 “모든 문학 형식들 중에서 원문 언어의 성숙과정과 그 산고(産苦)에 각별하게 주목하는 하나의 문학형식”(벤야민, 250)이라고 말한다. 원문 언어가 세기(世紀)를 거치면서 변화하는데다가 번역자의 모국어 역시 변화하기 때문에 원작품이 시대를 거치며 영속하여 우리 곁에 남게 되고 언어들의 변화와 성장을 음미하고 이를 단련하며 시험해내는 작업이 바로 번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원작품이 세대를 거듭하며 다른 언어로 재(再)번역되는 것이 상업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닐 것이다.

결정적으로 벤야민은 번역가의 과제가 자신이 그 안에서 번역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 원문의 “메아리”(écho)가 일깨워져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미의 복원보다는 “형식의 복원”(restitution du forme, 벤야민 256)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 형식이 도대체 무엇이나고 질문해야만 하겠지만 「번역가의 과제」에서 벤야민은 형식에 대한 언급에 앞서 문학의 작품의 본질은 “포착할 수 없는 것, 신비로운 것, 시적인 것”(벤야민 245)이라고 말하면서 번역가가

스스로 시작(詩作)하는 시인이어야 그 시적인 것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대목이 있다. 이런 예비적인 언급으로 보아 그가 말하는 형식은 시적인 것과 모종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어쨌든 벤야민에 따르면 번역은 “원문의 의미에 동화”(벤야민 257)하는 작업이기보다는, 조각난 사기그릇의 파편을 하나씩 주워 그것을 다시 복원하듯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원문의 표현방식을 번역 언어 속에 체화하도록”(벤야민 257)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형식에 대한 충실성을 표방하는 벤야민은 진정한 번역이 문장(phrase)의 의미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구문(syntax)을 직역하여 옮기는 것”을 통해 성공하게 된다고 말한다. 반대 방향에서 말해보면, 원문이 그 나름의 질적 가치와 위엄을 덜 가지면 가질수록 번역은 내용의 측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치중하게 되고 그렇게 의미가 번역의 지배적인 요소가 되면 “형태적으로 완성도 있는”(벤야민 260) 번역을 어렵게 된다고 벤야민은 보는 것이다. 벤야민에 따르면 진정한 좋은 번역가는 원문의 “표현, 이미지, 소리(음성)”(벤야민 260)가 서로 결합되는 지점과 정도까지 파고 들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번역은 형태(형식)라는 벤야민의 선언에서 우리는 형태가 지니는 함의를 다소나마 알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자문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의미의 복원을 넘어서 형식의 복원에까지 진척된 번역 활동은 도착언어 또는 번역가의 모국어에는 어떤 결과나 영향을 미치는 걸까? 벤야민은 한(외국)언어가 가진 정보적 차원의 메시지나 의미 전달만을 고집하지 않고 그 외국어의 형식적 특성들—음성적 특성, 운율적 특성, 이미지적 특성, 표현적 특성 등등—을 번역을 통해 번역가의 모국어 안에서 수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번역가의 과제”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모국어는 번역 활동을 통해 자국성의 경계 안에만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변화 없는 동일성의 상태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적 경계가 “확장되고 심화되는”(벤야민, 260) 것이 아닐까? 외국어를 번역하면서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하는 것을 지양(止揚)하는 번역론의 입장에서 보면, 형식과 형태가 다른 수많은(외국)언어들을 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지역적인 틀과 한계를 벗어나는 모국어의 변화양상을 관찰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국어도 여러(외국)언어 중에 하나로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벤야

민은 이미 베누티(Venuti) 같은 번역학자의 “이국화”(foreignization)를 선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번역은 원문의—또는 원문이 지닌 의미의—동어반복이거나 원문과 동일한 지위에 오르는 것이 그 목표는 아닐 것이다. 결국 번역 활동을 통해 번역자의 모국어는 이국언어의 낯센과 이국성과 맞닥뜨리고 이것에 어느 정도 강제 당함으로써 폐쇄적이고 (악)순환적인 자기 동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진정 중요한 사실이다. 물론 이것은 번역가의 과제나 임무가 성공적으로 성취됨에 따라 얻어지는 것이므로 현실의 번역 상황에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개연적이며 빈번할 수 있는 것이다.

4. 달는 글: 순수 언어(*reine Sprache*)의 문제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의 첫 부분을 인용하며 우리는 그 인용문에서 수용자인 독자의 문제, 번역과 (모국어) 독자사이의 문제,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와 위상의 문제, 원문 텍스트의 종류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번역의 목적과 역할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였고 부분적으로나마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벤야민의 「번역가의 과제」를 읽어 내는 독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순수 언어(*pure language/pur language*)의 문제이다. 사실 이 개념이 등장하는 앞뒤의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이 개념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구절들은 드물기 때문에 독자들은 벤야민이 여전히 매우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독일 문학을 연구하는 국내 문헌들(이창남, 김영옥, 최성만)의 맥락 내에서도 번역학을 소개하고 입론하는 저서(Munday 2006)에서도 그 개념에 대한 언급이 매번 등장하지만 설명대상이 되어야 할 그 개념은 오히려 다른 것을 설명하는 설명항(說明項)으로 제시된다. 그것은 벤야민의 텍스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진정한 번역은 투명하다. 진정한 번역은 원문을 은폐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기보다는 마치 자기 스스로의 매개를 통해 한층 강화된

순수 언어를 원문 위에 보다 더 온전한 방식으로 내려앉도록 한다. (벤야민 256)

무겁고 낯선 의미로부터 순수언어를 해방시키고 상징화하는 것을 상징된 것으로 만들어 내고 그런 형태를 지닌 순수언어를 일반 언어의 운동 속에 재통합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번역의 막중하고 유일한 능력이다. (벤야민 258)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하지도 않고 표현하지 않는 그러나 무표현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순수 언어..... (벤야민 259)

번역가의 과제란 다른 언어 속으로 추방당한 순수 언어를 자신의 언어 안으로 되가져오는 것이며, 작품 속에 잡혀 있는 순수 언어를 원작의 재창조를 통해 해방시키는 것이다.(벤야민 259)

먼데이(Munday)는 벤야민이 말하는 이런 순수 언어의 해방이 “(원문) 외국어 영향”과 구문의 직역성에 의해 가능하다는 언급(먼데이 243)을 달지만 그것으로는 아직 순수 언어의 정체를 알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위의 인용문들에서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은 번역의 지향 또는 번역가의 과제란 두 언어, 다시 말해 출발언어(원문)와 도착언어(모국어)에만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제3의 언어(순수 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를 간단한 도식으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순수 언어
(개입)

출발언어(원문) -----> 도착언어(모국어)

벤야민은 번역이 두 상이한 언어들 간에 “의미”를 ‘수평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번 우리는 강조했었다. 따라서 제 3언어의 ‘수직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 그런 생각에 이르르게 되었을까? 언어 기호의 구성 요소 중에 내용(의미/시니피에) 보다는 형식(구문·소리/시니피양)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벤야민 같은 이의 번역론은 의미들 간의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동과 전이에만 만족할 수 없어서 다른 언어들의 형식적 및 형태적 요소에 개방적이고 이를 모국어의 틀 내에서 통합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추다고 볼 수 있다. 벤야민은 “그리스나 영어를 독일어화”는 것을 걱정하면서 “독일어를 힌두어화 그리스어화”(벤야민 260)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틀어 벤야민은 모국어인 독일어의 경계가 궁극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번역론적 입장에서 보면 마치 바벨탑의 혼란을 반영하는 현실의 자연 “언어의 복수성”(벤야민 국역본 333)은 현실적 번역 상황에서 장애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실제 자연 언어의 다원성은 그 의미론적 장의 다양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각 자연 언어들이 가진 (최소한의) 음운론적 및 구문론적 환원불가능성을 함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불일치나 불협화음적 요소를 초월적 자리에서 매개하고 거중 조정할 제 3언어를 상정하는 것이야 말로 어찌면 당연한 발상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순수 언어의 “순수”라는 형용사는 마치 철학자 칸트(Kant)의 “순수 이성”과도 같이 그 안에 한 치의 경험적 요소나 사물 대상적 속성을 가지지 않듯, 개별 자연 언어의 경험적 의미나 경험적 대상 또는 그런 의사소통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하다. 그 순수 언어는 아직 인간이 경험적으로 사용해본 언어가 아니며, 만약 사용했다 하더라도 바벨 이전의 언어일 수 있다는 신학적 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언어일 것이다. 철학자 리콰르는 자신의 「번역론-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에서 번역이 가져다주는 시련을 언급하면서 벤야민을 비판적으로 언급하는데 완벽한 번역에 대한 염원과 욕망에서 순수 언어에 대한 논의가 등장했다는 것이다(리콰르 87). 다시 말해 순수 언어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언어적 차원에서 재현”(리콰르 87)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번역에는 그 안에 그 순수 언어에 대한 메시아적 반향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순수 언어의 기원에 대한 벤야민의 내적 논리는 나름의 개연성을 갖는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언어가 어떤 구체적인 과정과 계기를 통해 실제의 두 언어 번역에 개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벤야민의 설명이나 언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원문에 대한 번역가의 번역의 과정에서 외화(外化)되기를 기다리는 ‘잠재적’ 언어이기도 하면서 출발언어와 도착언어사이의 위대한 “조화”

를 통해 달성되기도 하는 ‘이상적’ 언어가 바로 그 순수한 언어인 것이다. 다시 말해 번역가가 가장 훌륭하게 발견해내야 할 과제의 대상이 되는 언어가 바로 순수 언어 일 것이다. 번역가가 궁극적으로 구현해 내야 할 언어가 순수한 언어라면 그것은 희귀하고 고귀한 언어임에 틀림없을지라도 그만큼이나 실현해내기 어려운 언어임에 틀림없다.

벤야민이 “번역가의 과제”라는 제목과 그 문맥을 통해 은근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 “과제”가 전가되는 소위 ‘문학’번역가에게 그런 고된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길을 강제적으로 견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 삶을 살면서 누구나가 이르고자하는 그곳- “유토피아” 또는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곳- 을 꿈꾸듯 바로 벤야민이 번역과 번역가가 이를 수 있는 파라다이스를 그려낸 것이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번역가의 과제」는 한 치도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하지만 벤야민이 남은 자들에게 “보물섬”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 섬에 이르는 지도까지 우리에게 그려 놓았는지는 아직 여전히 의심스럽다.

참고문헌

- 권재일 옮김.1989. 『일반언어학이론』. 서울: 민음사 (Roman Jakobson. 1963. *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Minuit)
- 김득룡 옮김. 2000. 『발터 벤야민-예술, 종교, 역사철학』. 서울: 서광사 (Nobert Bolz & Willem van Reijen . 1991. *Walter Benjamin* . Frankfurt: Campus Verlag)
- 김영옥.1994. 「벤야민의 경험이론- 언어철학과 역사철학이 만나는 곳」. 『현대비평과 이론』. 봄·여름호 . 156-178.
- 두행숙 옮김. 1998. 헤겔 지음. 『헤겔 미학 III-개별 예술들의 변증법적 발전』. 서울: 나남출판
- 반성완 편역. 1983. 벤야민 지음.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서울: 민음사
- 윤성우·이향 옮김, 2006. 『번역론-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서울: 철학과 현실

- 사 (Paul Ricoeur. 2004. *Sur la traduction*. Paris: Bayard)
- 이순예 옮김. 2006. 『발터 벤야민』. 서울 : 인물과 사상사 (Momme Brodersen. 2005. *Walter Benjamin*. Frankfurt: Suhrkamp Verlag)
- 이창남. 2004. 「발터 벤야민의 언어이론적 인식론과 독서 개념」. 『독일문학』. 92호. 232-252.
- 정연일·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 출판부 (Jeremy Munday. 2000.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theories & Applications*. London: Rouledge)
- 최성만. 1996. 「언어, 번역, 미메시스-벤야민의 언어 철학과 유사성론 고찰」, 『문예미학』 2호, 289-320.
- Benjamin, Walter. 2000. "THE TASK OF THE TRANSLATOR: An introduction to the translation of Baudelaire's *Tableaux Parisiens*", tr.by Harry Zohn, in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ed. by Lawrence Venuti, London: Rouledge.
- _____. 2000. *Walter Benjamin, Oeuvres I*, Paris: Gallimard.
- Berman, Antoine .1984. *L'Épreuve de l'étranger*, Paris: Gallimard, 1984.
- _____. 1999. *La traduction et la lettre ou l'auberge du loiltain* . Paris: Seuil.
- _____. 1999. "L'ÂGE DE LA TRADUCTION-«La tâche du traducteur» de Walter Benjamin, un commentaire", in *La Traduction-poésie À Antoine Berman* . Strasbourg: Presses Universitaires De Strasbourg.
- Ladmiral, Jean-René. 1994. *Traduire : théorèmes pour la traduction*. Paris: Gallimard.
- Schleiermacher, Friedrich. 1999. *Des différentes méthodes du traduire (Ue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Uebersetzens)*. tr. par Antoinr Berman. Paris: Seuil.

[Abstract]

A Study on W. Benjamin's theory of translation

Yun, Seong Wo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some implications of Benjamin's theory of the translation, focusing on "The Task of the Translator". His conceptions of translation are more complex than they appear. Although some commentaries of Benjamin's works try to develop his point of views of translation, his arguments remain dense and always contain a thought that proceeds by means of logical discordance. We propose that his idea of translation is fundamentally based on that of languag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primarily Benjamin's concepts of language. Benjamin translated a part of *Tableaux Parisiens* of Baudelaire into German. "The Task of the Translator" appears as a preface of his translation. In this essay he argues that the true essence of language is not a simple linguistic sign by which the human beings designate things of the world, but a real media in which the language transfers itself.

According to this idea of language, Benjamin's theory of translation is not simply to translate a meaning of the phrase or the sentence, but to assimilate a singular form of the source language. It naturally accompanied with the sense of image, expression, tone of the source texts. Finally it leads to the way to surpass a meaning oriented translation by assuming the becoming and variation of the target language as acceptable frame of the creative linguistic characteristics. Through the criticism of a meaning oriented translation, Benjamin requires that a third language, called 'pure language', harmonize a source text with a target text. But as far as used in a theologico-metaphysical mode, the concept of pure language remains doubtful.

▶ Key Words: Walter Benjamin, meaning, form, pure language, task of the translator, source language, target language.

윤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

swyun2002@hanafos.com

관심분야: 번역 철학, 언어 철학, 현대 프랑스 철학

논문투고일: 2007년 4월 21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7년 6월 13일